

## 대학생의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상우\*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Extra Curricular Activities on Academic Achievement

Sang Woo Lee\*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Ju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의 대학은 존립과 성장을 위해 대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의 목표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개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활동을 난이도별로 가중하여 누적한 비교과 활동점수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의 기초적 수학능력을 통제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은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대학이 보다 다양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비교과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여학생의 비학점 활동 참여도는 남학생과 비슷하지만 성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학년 학생은 참여도와 성과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학생과 저학년 학생의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학점 활동에 대한 홍보나 장학금 등 경제적 보상 뿐 아니라 교수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대학 교육, 비교과 활동, 학업성취도, 효과 분석, 학업 성과

**Abstract** Universities in Korea are presenting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survival and growth. Although the goal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divers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mulative scor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by difficulty level and academic achievement. As a result, first, even if students' basic academic skills were controll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 achievement. This suggests that universities should provide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are more diverse and tailored to the needs of students. Second,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students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s similar to that of male students, but the performance is very high. Third, Senior students show high levels of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students and lower grade students. To this end, not only publicity and compensation, but also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instructors will be required.

**Key Words** : College educati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ademic achievement, Effect analysis, Academic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 Sang Woo Lee(minaa@jj.ac.kr)

Received December 13, 2022

Accepted March 20, 2023

Revised January 17, 2023

Published March 28, 2023

## 1. 서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시장 개방으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각종 교육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 서비스를 향상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대학에서 학부제, 복수전공제, 산학협력 연계제 등 대학생의 취업과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려는 동기 부여가 부족한 점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대해 자기 주도적인 적극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교과 활동의 운영이다[2].

일반적으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은 크게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 교육과정으로 나뉘며,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에는 대표적으로 학생회나 동아리에서의 활동과 봉사활동 등으로 실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며(Kim & Lee ; 2016), 그 외에도 대학마다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이나 견학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일리지 제도나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3].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전공 교육과정이나 교양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재학생의 진로 탐색과 발달을 도모하고, 인지 및 비인지 역량과 학습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Jang & Noh(2011)는 효율적인 멘토링 활동이 경력기능, 역할모형 기능, 심리·사회 기능에 영향을 줌으로써 만족 몰입과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정서, 적응, 대인관계와 같은 비인지적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4].

물론 모든 선행 연구가 대학교의 비교과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5]. Park & Chung(2017)은 대학들이 국고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그 성과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실증연

구를 통해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대학생의 핵심역량 성취도에 영향을 주지만 그 외의 프로그램은 일부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과 부족을 비교과 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6].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의 결론은 비교과 활동이 학생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이 학생에게 미치는 인지적, 비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는바, 대부분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문조사 위주의 연구들은 표본의 수가 적어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정한 성향을 띠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을 때 설문의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의 생존 및 학생성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학업 성취도이므로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대학 성적인 학점(GPA)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고교성적 등의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비교과 활동의 학업 성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Lee & Kwon(2018), Lee(2020) 등이 있다. 이들은 비교과 활동의 참여도가 자연·공학계열의 여학생이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학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과 활동의 교육 성과를 탐색한 선행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단일요인으로만 분석하는 경우 비교과 활동에 대한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7].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A 대학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에의 참여 정도를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포인트(Certification Point: CP)로 환산하여 마일리지로 누적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적용되는 포인트의 크기가 비교

과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단순히 참여 여부 등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 비해서는 비교과 활동의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더욱 정확한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의 수학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비교과활동의 효과를 추론한 것도 본 논문의 차별점이 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비교과 활동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의미(co-curricular)와 (준)공식적으로 승인된 학생활동을 의미하는 의미(extra-curricular)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통칭하여 non-curricular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8].

활동의 범위가 다양한 만큼 비교과 활동을 권장하는 이유도 다양한데 대표적인 목적으로는 토익이나 자격증 취득 등 취업률 증가목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목적, 사회봉사나 인성교육을 위한 목적, 심지어는 스포츠 등 체력증진을 위한 목적들도 포함하며 어떠한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활동도 사회경험으로 인정하여 비교과 활동으로 인정하기도 한다[9], [10].

우리나라에서 비교과 활동이 중요성이 주목받은 것은 학부 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영향이 크다. ACE 사업의 3대 추진전략 가운데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개선의 세부 전략은 교양 기초교육 강화, 전공 교육 내실화, 비교과 교육의 내실화 등인데 이에 따라 ACE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은 그동안 단편적·산발적·일회적으로 운영되었던 비교과 프로그램을 사업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

비교과 활동에 다양한 내용과 목적이 존재하고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변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비교과 활동의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다수이다.

비교과 활동이 대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확장시키고 리더십, 자존감, 정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존재한다([11], [12]). 또한 전공공부를 하는데 기초적인 소

양이라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및 보편적 지식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있다([13], [14]).

본 논문의 주제인 학업성취에 비교과 활동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7], [15], [16], [17]), 이러한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면서 대비가 되는 연구로는 Hwang(2019)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비교과 활동에 참여전과 후의 학점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학점상승이 유의하지 않았나 성별, 전공별, 입학연도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비교과 활동 참여 전후의 학점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 요인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비교과 활동은 하나의 활동만으로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누적된 활동의 결과가 학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활동별로 난이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참여자의 학습능력이 중요한데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과 활동이 모든 참여자의 학습 동기부여에 기여하여 학습량을 늘리고 이 결과로 학습성도가 높아진다고 하자. 그런데 남학생집단은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여학생 집단은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가정할 경우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여학생의 학습성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우연히' 여학생 집단의 잠재적 학습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이를 결과로 비교과 활동의 참여결과가 여학생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될 것이다.

## 3. 연구가설 및 연구 방법

###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업능력이나 성별요인 등을 통제하는 경우 '누적적'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누적된 비교과 활동을 난이도별로 집계한 CP점수를 이용함으로써 비교과 활동의 난이도 및 누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CP 점수는 활동의 난이도별로 누적된 점수이므로 단순한 참가여부 혹은 난이도의 비교과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누적치를 이용하는 경우 학년 증가로 인해 누적

점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누적편의 현상을 해결하기로 한다. 이어서 도출된 주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난이도에 따라 누적된 비교과 활동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인 언어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비교과 활동이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 변인으로 학생의 언어능력이 거론된다. 즉 교재나 자료 등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학업 성과가 높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는 많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사용하였다. Lee & Park(2018)에 따르면, 고교 수학이나 영어 내신도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이 소속한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그 영향이 큰 차이를 보이며, 국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언어능력으로 한정하고 고등학교의 국어내신등급을 언어능력의 대용치로 사용하기로 한다.

가설 2: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통제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은 학생의 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동일한 비교과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학생의 성별이나 학년 등의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교과 활동에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측면이 강하여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며(Kim & Kim ; 2016, Kim & Park ; 2019),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교과 활동 특히 취업에 관련된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의 수립이 가능하다.

가설 3: 여학생의 경우 비교과 활동의 성과가 남학생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보다 비교과 활동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하 분석에서는 이러한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 3.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A 대학은 입학정원이

2,500명 정도로 전체 학생 수가 10,000명 내외가 되는 중규모 지방 소재 사립대학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8월 30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2021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모두 10,397명이지만, 이들 학생 중에서 외국인이나 편입생들은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전 학기 성적 및 비교과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실기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경우 성적 평가 방법이나 학습 방법 등이 다르므로 예체능계 학생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오래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이 많아서 최근 입학한 학생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 학생은 2015년 이후에 새로 입학하여 2021년 8월 30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계열의 학생 7,375명이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변수는 비교과 활동 점수이다. A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도전정신, 능력개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내 기관들이 주관하여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참여 정도와 성과를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인증 점수(Certification Point: CP)를 부여하고 개인별 합산 점수에 따라 총장 인증서와 자기 계발 향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 포인트는 대학 생활 내내 계속 누적되는데 이를 대학 생활의 비교과 활동 참여도로 판단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과 활동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CP는 매 학기 집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점수는 2021학년도 1학기까지 누적된 점수이다. 이에 따라 학년이 높을수록 CP가 상향되는 경향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학생의 학년 변수를 함께 이용하기로 하였다.

표본이 되는 단과대학은 경영대학, 공과대학, 문화관광대학, 문화융합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학대학, 인문대학 등의 8개 단과대학이다.

전체 7,375명 중에서 남학생은 3,456명으로 4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3,919명으로 53.14%를 나타냈다. 성비는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7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대학이 52.59%로 두 단과대학만이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1학년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병역 휴학으로 인하여 남학생의 재학 기간이 긴데다가 남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높기 때문이다[18].

대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Table 1. Distribution of gender and grade**

| sex    | grade |       |       |       |       |
|--------|-------|-------|-------|-------|-------|
|        | 1     | 2     | 3     | 4     | total |
| male   | 1035  | 770   | 801   | 850   | 3456  |
|        | 29.95 | 22.28 | 23.18 | 24.59 | 46.86 |
| female | 972   | 1045  | 983   | 919   | 3919  |
|        | 24.8  | 26.66 | 25.08 | 23.45 | 53.14 |
| total  | 2007  | 1815  | 1784  | 1769  | 7375  |
|        | 27.21 | 24.61 | 24.19 | 23.99 | 100   |

**3.3 학생 변인 분석**

먼저, 연구대상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적을 분석해 보았다. A 대학의 2020년 1학기 및 2학기, 그리고 2021년 1학기의 학점 평균은 각각 3.82, 3.86, 3.78로 나타나고 있다(만점은 4.50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인 2020년~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 방식이 온라인 원격 수업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평가 체제도 이전의 상대평가 방식 위주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학점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표본의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19년의 학점 평균이 3.4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020~2021년의 학점 평균이 0.35~0.4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매 학기 비교과 참여 성과가 아니라 2021년 1학기 말을 기준으로 그동안 누적된 비교과 참여 성과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때문에 단순히 2021년 1학기의 평점(GPA)뿐만 아니라 직전 학기인 2020년 2학기 및 2020년 1학기와의 관계도 같이 살펴 보았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학기별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기에 2학기의 평점과 3학기의 평점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였다(성적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결측치로 처리했기 때문에 신입생의 경우 2학기 평점이나 3학기 평점은 모두 2021년도 1학기

의 성적과 같다).

최근 2학기의 평점과 3학기의 평점이 모두 3.75로 같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2학기 혹은 3학기의 평점의 단순평균보다 낮은 값이다. 그 이유는 표본에 2021년도 1학기를 수강한 학생(특히 신입생)이 많이 포함된 결과로 추정된다.

성적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있어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학기의 평점이 남학생 3.69, 여학생 3.90이며 2020년 2학기의 경우 남학생 3.73, 여학생 3.94, 2021년 1학기의 경우 남학생 3.58, 여학생 3.86으로 여학생이 매 학기 0.2 이상 높은 성적을 보였는데, 이는 두 학기 평균이나 세 학기 평균을 살펴봐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이로써 본 연구도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의 학업성취도보다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19], [20]).

**Table 2. Grade distribution by gender**

| semester           | sex  |      | total |      | male |      | female |    |
|--------------------|------|------|-------|------|------|------|--------|----|
|                    | gpa  | SD   | gpa   | SD   | gpa  | SD   | gpa    | SD |
| 2020 - 1           | 3.82 | 0.58 | 3.69  | 0.65 | 3.90 | 0.53 |        |    |
| 2020 - 2           | 3.86 | 0.57 | 3.73  | 0.64 | 3.94 | 0.50 |        |    |
| 2021 - 1           | 3.73 | 0.66 | 3.58  | 0.72 | 3.86 | 0.57 |        |    |
| avg of 2 semesters | 3.75 | 0.62 | 3.60  | 0.69 | 3.88 | 0.52 |        |    |
| avg of 3 semesters | 3.75 | 0.61 | 3.60  | 0.68 | 3.88 | 0.51 |        |    |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나타내는 고교 국어 내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내신 평균 등급이 5.42이며, 여학생은 5.05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학생의 고교 국어 내신이 더 우수하므로 기초적인 학습 능력도 남학생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내신성적은 낮을수록 우수함). 이로써 비교과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 성별 변수뿐만 아니라 기초 학습 능력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Credit rating by sex**

| sex    | N    | credit rating | SD    |
|--------|------|---------------|-------|
| male   | 3374 | 5.421         | 1.342 |
| female | 3820 | 5.052         | 1.266 |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의 대용치인 고교 국어 내신과 성별은 상호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여학생의 국어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좋으므로 성별 혹은 고교 국어 내신이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어 학업 성과

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두 변수를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를 살펴보면 국어 내신에 대한 추정치는 -0.11이며 t 값은 -18.82로 나타나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도 추정치가 0.24로 나타나 t 값은 16.42로 역시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과 고교 국어 내신이 모두 독립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CP of credit ating and sex(2021-1)**

| variable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intercept     | 4.15      | 128.60  | 0.0001     |
| credit rating | -0.11     | -18.82  | 0.0001     |
| sex           | 0.24      | 16.42   | 0.0001     |

### 3.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A 대학의 비교과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주된 변수를 비교과 활동으로 삼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성별, 기초 학습 능력, 학년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통제변수별로 집단화하여 t 검정을 하였으며,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통제변수 간에도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두 개 이상 투입한 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통계 패키지 SAS 9.4를 이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비교과 활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A 대학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성과로 활용한 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 대학의 각종 기관에서 주관한 각종 교내·외 활동에서 부여한 인증 점수(CP)이다. 2021년 8월 30일 기준으로 연구대상 학생 중 남학생은 28.95점, 여학생은 28.71점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은 표준편차와 최솟값 및 최댓값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학년별로 CP를 살펴보면 1학년은 9.23, 2학년은 17.80, 3학년은 30.72, 4학년은 56.43으로 나타나 학년

이 올라가면서 점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의 차이는 8.57,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는 12.92, 3학년과 4학년의 차이는 25.71로 나타나 비교과 활동이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 저학년보다는 학교생활을 오래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주변의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활동에 대한 정보나 유익에 대해 알게 되면서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Table 5. Certification points by gender**

| sex    | CP    | SD     | min | max |
|--------|-------|--------|-----|-----|
| male   | 28.95 | 37.297 | 2   | 437 |
| female | 28.71 | 40.732 | 2   | 433 |

**Table 6. Certification points by grade**

| grade   | N    | CP    | SD    | min | max |
|---------|------|-------|-------|-----|-----|
| 1 grade | 505  | 9.23  | 8.78  | 2   | 85  |
| 2 grade | 1496 | 17.80 | 14.28 | 2   | 139 |
| 3 grade | 1556 | 30.72 | 34.04 | 2   | 369 |
| 4 grade | 1610 | 43.34 | 56.43 | 2   | 437 |

어떤 특성이 있는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나타내는 고교 국어 내신을 독립변수, CP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7처럼 국어 내신에 대한 회귀계수는 -0.91로 나타나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P of credit rating**

| variable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intercept     | 33.35     | 14.98   | 0.00       |
| credit rating | -0.91     | -2.17   | 0.03       |

다음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요인인 고교 국어 내신과 성별을 같이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인 Table 8은 Tabel 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교 국어 내신이 좋은 학생의 경우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지만(회귀계수 -0.94, 유의수준 0.03), 성별의 경우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없어 특정 성별을 갖는

학생이 비교과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편 이는 앞선 Table 5의 결과를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P of credit rating and sex**

| variable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intercept     | 33.82     | 14.10   | 0.00       |
| credit rating | -0.94     | -2.21   | 0.03       |
| sex           | -0.58     | -0.52   | 0.60       |

앞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교과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기초통계 자료를 가지고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학년과 비교과 활동 참여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고교 국어 내신이 비교과 활동 참여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어 내신을 같이 회귀식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Table 9를 보면 학년에 대한 추정치는 11.74로 나타나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로써 고학년일수록 비교과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고교 국어 내신의 유의성이 12%로 10% 유의수준 하에서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고학년일수록 내신등급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학년일수록 기초 학습 능력 수준이 다소 낮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근래 들어 대학 입시에서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재학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학년생들이 저학년생들보다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매년 신입생들의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점을 뜻하기 때문에 향후 대학 교육 정책과 방향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Table 9.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CP of credit rating and grade**

| variable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intercept     | -1.41     | -0.53   | 0.60       |
| credit rating | -0.62     | -1.54   | 0.12       |
| grade         | 11.74     | 22.01   | 0.00       |

4.2 비교과 활동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CP와 최근 세 학기 간의 성적은

회귀분석 하였다(Table 10).

**Table 10.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 of CP**

| variable           |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2020 - 1           | int. | 3.821     | 344.48  | 0.0001     |
|                    | CP   | 0.001     | 5.52    | 0.0001     |
| 2020 - 2           | int. | 3.846     | 366.32  | 0.0001     |
|                    | CP   | 0.001     | 7.13    | 0.0001     |
| 2021 - 1           | int. | 3.756     | 365.26  | 0.0001     |
|                    | CP   | 0.002     | 8.22    | 0.0001     |
| avg of 2 semesters | int. | 3.785     | 402.1   | 0.0001     |
|                    | CP   | 0.002     | 8.6     | 0.0001     |
| avg of 3 semesters | int. | 3.788     | 414.56  | 0.0001     |
|                    | CP   | 0.002     | 8.34    | 0.0001     |

CP와 2020년 1학기 성적과의 회귀계수는 0.001로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며, 2020년 2학기 성적과 2021년 1학기 성적과의 회귀계수 역시 각각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최근 두 학기의 평점 평균을 종속변수로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계수는 0.002였으며, 최근 세 학기의 평점 평균과의 회귀계수는 0.02로 나타나 모두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과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여학생이 과제물 입도가 높고 기초 학습 능력이 양호하므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은 Table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CP와 성별을 같이 종속변수로 투입했을 때 모든 경우에서 회귀계수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2020년 1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한 경우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남학생=0, 여학생=1)는 0.193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2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한 경우에는 0.198, 2021년 1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삼았을 때 0.222로 나타나 모든 경우에서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최근 두 학기의 성적 또는 최근 세 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회귀 분석한 때도 같은데, 각각의 회귀계수는 0.212 및 0.205로 나타나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기초 학습 능력인 고교 국어 내신이 양호하므로 이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가 비교과 활동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

의 차이에서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Table 12에 나타났는데, 독립변수로 CP, 고교 국어 내신, 성별을 모두 투입한 결과는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성이 높아 각각이 독립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1.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 of CP(Controlling sex)**

| variable           |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2020 - 1           | int. | 3.693     | 224.98  | 0.0001     |
|                    | CP   | 0.001     | 5.98    | 0.0001     |
|                    | sex  | 0.193     | 10.5    | 0.0001     |
| 2020 - 2           | int. | 3.720     | 248.27  | 0.0001     |
|                    | CP   | 0.002     | 7.53    | 0.0001     |
|                    | sex  | 0.198     | 11.57   | 0.0001     |
| 2021 - 1           | int. | 3.627     | 259.9   | 0.0001     |
|                    | CP   | 0.002     | 8.4     | 0.0001     |
|                    | sex  | 0.222     | 13.4    | 0.0001     |
| avg of 2 semesters | int. | 3.662     | 287.09  | 0.0001     |
|                    | CP   | 0.002     | 8.8     | 0.0001     |
|                    | sex  | 0.212     | 14.06   | 0.0001     |
| avg of 3 semesters | int. | 3.668     | 296.28  | 0.0001     |
|                    | CP   | 0.002     | 8.54    | 0.0001     |
|                    | sex  | 0.205     | 14      | 0.0001     |

**Table 1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 of CP(Controlling sex and credit rating)**

| variable           |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2020 - 1           | int    | 4.132     | 104.62  | 0.0001     |
|                    | CP     | 0.001     | 5.72    | 0.0001     |
|                    | rating | -0.082    | -12.19  | 0.0001     |
|                    | sex    | 0.167     | 9.12    | 0.0001     |
| 2020 - 2           | int    | 4.022     | 108.08  | 0.0001     |
|                    | CP     | 0.001     | 7.25    | 0.0001     |
|                    | rating | -0.056    | -8.81   | 0.0001     |
|                    | sex    | 0.182     | 10.65   | 0.0001     |
| 2021 - 1           | int    | 4.084     | 113.74  | 0.0001     |
|                    | CP     | 0.002     | 8.05    | 0.0001     |
|                    | rating | -0.085    | -13.69  | 0.0001     |
|                    | sex    | 0.195     | 11.93   | 0.0001     |
| avg of 2 semesters | int    | 4.078     | 124.5   | 0.0001     |
|                    | CP     | 0.002     | 8.43    | 0.0001     |
|                    | rating | -0.078    | -13.69  | 0.0001     |
|                    | sex    | 0.189     | 12.68   | 0.0001     |
| avg of 3 semesters | int    | 4.106     | 129.38  | 0.0001     |
|                    | CP     | 0.002     | 8.19    | 0.0001     |
|                    | rating | -0.082    | -14.9   | 0.0001     |
|                    | sex    | 0.181     | 12.55   | 0.0001     |

2020년 1학기 성적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경우 CP에 대한 회귀계수는 0.001, 고교 국어 내신에 대한 회귀계수는 -0.082,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는 0.167로 나타

났다. 2020년 2학기의 경우 각각의 회귀계수는 0.001, -0.056, 0.182로 나타났고, 2021년 1학기의 경우 회귀계수는 0.002, -0.085, 0.195로 나타나 모든 회귀계수가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CP와 성별에 대한 유의수준(t값 기준)이 최근으로 올수록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CP가 2021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한 총점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를 최근 두 학기 및 최근 세 학기로 나타낸 경우에도 결과는 같게 나타났다. 즉, 최근 두 학기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CP에 대한 회귀계수는 0.002, 고교 국어 내신에 대한 회귀계수는 -0.078,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는 0.189로 나타났으며, 최근 세 학기 성적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의 회귀계수는 0.002, -0.082, 0.181로 나타나 모두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매 학기가 아니라 2021년 1학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인증점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의 학년 요인이 가장 크다. 따라서 학년을 통제해야 하는데 먼저 학년별로 분리하여 비교과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Table 1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2021-1) of CP by grade(Controlling sex)**

| variable |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1 grade  | int    | 4.434     | 34.2    | 0.0001     |
|          | CP     | 0.011     | 3.22    | 0.0014     |
|          | rating | -0.169    | -8.02   | 0.0001     |
|          | sex    | 0.171     | 2.85    | 0.0045     |
| 2 grade  | int    | 4.044     | 57.41   | 0.0001     |
|          | CP     | 0.005     | 5.26    | 0.0001     |
|          | rating | -0.103    | -8.8    | 0.0001     |
|          | sex    | 0.247     | 7.79    | 0.0001     |
| 3 grade  | int    | 3.944     | 62.91   | 0.0001     |
|          | CP     | 0.002     | 3.95    | 0.0001     |
|          | rating | -0.057    | -5.12   | 0.0001     |
|          | sex    | 0.178     | 6.32    | 0.0001     |
| 4 grade  | int    | 4.043     | 65.04   | 0.0001     |
|          | CP     | 0.001     | 4.16    | 0.0001     |
|          | rating | -0.063    | -5.86   | 0.0001     |
|          | sex    | 0.193     | 6.85    | 0.0001     |

Table 13을 보면 종속변수를 2021년 1학기 성적으로 삼는 경우 1학년에 대한 회귀계수는 CP는 0.011, 고교 국어 내신은 -0.169, 성별의 경우 0.171로 나타나 모두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2학년의 경우에 회귀계수는 각각 0.005, -0.103, 0.247이며, 3학년의 경우에 회귀계수는 각각 0.002, -0.057, 0.178이고, 4학년의 경우에 회귀계수가 0.001, -0.063, 0.193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t 값을 기준으로 유의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어 고학년의 경우 비교과 활동에 대한 몰입도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년별 비교과 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종속변수를 최근 두 학기 및 최근 세 학기로 변경한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앞의 분석에서는 학년별로 분리하여 학년의 효과를 통제하였는데, 이번에는 학년 변수를 회귀식에 직접 통제변수로 투입한 결과를 살펴보았다(Table 14).

**Table 1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PA of CP by grade(Controlling credit rating, sex and grade)**

| variable           | estimated | t value | sig. level |        |
|--------------------|-----------|---------|------------|--------|
| 2021 - 1           | int       | 3.991   | 92.26      | 0.0001 |
|                    | CP        | 0.001   | 6.57       | 0.0001 |
|                    | rating    | -0.084  | -13.58     | 0.0001 |
|                    | sex       | 0.199   | 12.18      | 0.0001 |
|                    | grade     | 0.033   | 3.81       | 0.0001 |
| avg of 2 semesters | int       | 4.016   | 101.69     | 0.0001 |
|                    | CP        | 0.001   | 7.23       | 0.0001 |
|                    | rating    | -0.077  | -13.6      | 0.0001 |
|                    | sex       | 0.192   | 12.85      | 0.0001 |
|                    | grade     | 0.022   | 2.78       | 0.0055 |
| avg of 3 semesters | int       | 4.059   | 106.03     | 0.0001 |
|                    | CP        | 0.001   | 7.17       | 0.0001 |
|                    | rating    | -0.081  | -14.82     | 0.0001 |
|                    | sex       | 0.184   | 12.68      | 0.0001 |
|                    | grade     | 0.017   | 2.21       | 0.027  |

2021년 1학기의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CP에 대한 회귀계수는 0.001, 고교 국어 내신에 대한 회귀계수는 -0.084, 성별에 대한 회귀계수는 0.199이며, 학년에 대한 회귀계수는 0.033으로 나타나 모두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학년에 대한 회귀계수가 양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교과 활동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기초 학습 능력, 성별, 학년 등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를 최근 두 학기의 평균 성적

이나 최근 세 학기의 평균 성적으로 바꾸더라도 거의 같게 유지되어 비교과 활동이 강하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 5. 결론

오늘날 대학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의 목표는 다양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학업성취도의 증대일 것이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이 향상되면 그 결과로 학생의 학업성과 및 취업률이 증대되어 대학의 경쟁력이 상승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입시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활동을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누적한 점수인 CP를 비교과 활동의 참여정도로 정의하였으며, 학생들의 국어 내신점수를 수학능력의 척도로 대용하여 비교과 활동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의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회귀를 통해서도 검증되지만, 학생의 성별이나 기초 학습 능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강력한 유의성을 갖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호응이 큰 활동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하고 실제적인 비교과 활동을 마련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격려와 포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는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남학생보다 그리 높지는 않으나 동일한 정도의 참여 결과는 남학생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참여와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여학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저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자세히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들을 배려하고 유인할 특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의 비교과 활동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초기 성과의 중요성 때문이다. Lee & Park(2019)에 의하면 저학년 때의 성과가 자퇴

울에 큰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 결과는 비교과 활동이 성과에 영향을 주므로 자퇴율을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저학년 학생에게는 친구관계의 네트워크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oon(2015)은 학생들이 네트워크 중심성이 강해질수록 성과 및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수자의 직접적인 면담이나 관찰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중도이탈예방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21).

셋째, 지면관계상 보고하지 않았지만 비학점 교육의 참여도는 계열보다는 학과중심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과 활동의 참여도나 성과에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Kim & Kang(2021)의 연구에 의하면 교수와의 관계가 좋으면 비교과 활동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경제적인 요인은 만족도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A 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이 비교과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지만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유가 필요한데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실패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넷째,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비교과 과정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중요해졌는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원격지 거주 학생들도 비교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지지만 대면 활동으로 인한 친밀감의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한데 Kim et al.(2021)은 하나의 참조사항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가 특정 대학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A 대학의 경우 인정하는 비교과 활동은 내용을 확인하기 쉽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들이 주를 이루므로 다른 연구의 자료에 비해 공식적 활동중심일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 비교과 활동을 확대한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비교과 활동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대학생의 교육 만족도나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H. Y. Jang., & Noh. M. J.(2011), An Effect of Mentoring Functions on the Undergraduate'

Involvement and Adapt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and Fairnes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6(4), 23-52. UCI : G704-001274.2011.26.4.016

- [2] C. N. Park., & Chung. W. H.(2017), Study on the effects of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Influenc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39-71. UCI : G704-SER000001745.2017.11.1.021
- [3] E. Kim., & Kim, K. S.(2020), Operational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extra-curricular programs to support the curriculu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4), 95-101. DOI : 10.17703/JCCT.2020.6.4.95
- [4] S. H. Ko., & Lee, J. Y.(2013),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lub Activities in School Life Resilience: Testing Mediation Model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Welfare and Councelling Education*, 2(1), 35-51.
- [5] M. Tan., Cai. L & Bondovski, K.(2022), An active investment in cultural capital: structur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educational success in China., *Journal of Youth Studies*. 25(8), 1072-1087. DOI : 10.1080/13676261.2021.1939284
- [6] S. Kim., & Lee M. K.(2016), A Study on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College Extra-curricular Program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585-609. DOI : 10.22251/jlcci.2016.16.9.585
- [7] J. W. You.(2021), A Typology of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s to Learning Outcomes: The Case of A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3(1), 151-177. DOI : 10.17927/tkjems.2021.33.1.151
- [8] J.Kim(2020), The Role and Status of University Extra-curricular Activity, *Journal of Extra-curricular Research*, 1(1), 1-21
- [9] H. J. Kang & Kim, J.(2012), The Effects of Learning Community Program on College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Problem-solving Capacity,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1), 1-22.

- UCI : G704-000781.2012.18.1.002
- [10] J. Oh & Baek, S. G.(2004),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Dance Sports on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18(1), 143-152.  
UCI : G704-001368.2004.18.1.004
- [11] J. Kim & Jang, S.(2014),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College Education and College Adapt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2(4), 237-261,  
UCI : G704-SER000010453.2014.12.4.007
- [12] A. Guèvremont &, Findlay, L. & Kohen, D.(2014), Organiz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in-school and out-of-school activities associated with different outcomes for Canadian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 84(5), 317-325.  
DOI : 10.1111/josh.12154.
- [13] E. Foreman &, Retallick, M.(2012). Undergraduate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leadership development in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53(3), 111-123.  
DOI : 10.5032/jae.2012.03111.
- [14] F. Keser, Akar, H., & Yildirim, A.(2011). The rol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active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3(6), 809-837.  
DOI : 10.1080/00220272.2011.591433
- [15] R. A. Bakoban & Aljarallah, S. A.(2015),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Statistical stud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0(20), 2737-2744. DOI : 10.5897/ERR2015.2436
- [16] H. Lee., & Kwon. N. H.(2018), Comparisons between College Admission Types in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Related Factor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3), 825-851.  
DOI : 10.15753/aje.2018.09.19.3.825
- [17] H. Lee.(2020),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Female College Students' Extra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Career Maturity, Core Competency and Academic Achievement: Comparison of Major Field and Gender, *Asian Journal of Education*, 21(3), 849-878.  
DOI : 10.15753/aje.2020.09.21.3.849
- [18] S. W. Lee., & Park K.(2019),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and Dropou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1185-1210.  
DOI : 10.22251/jlcci.2019.19.11.1185
- [19] H. Kim., & Kim, O.(2016), Gender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Learning Outcomes, Self-directed Learning Engagements, and Social Interactions amo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0), 63-72.  
DOI : 10.35873/ajmahs.2016.6.10.006
- [20] M. S. Kim., & Park, S.(2019), Analysing of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Freshman at A university in Seou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237-259.  
DOI : 10.22251/jlcci.2019.19.6.237
- [21] H. Choi & Lee, H.(2021),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lza Coaching Extra-curricula Program to prevent Drop-outs, *Journal of Extra-curricular Research*, 2(2), 1-23
- [22] S. W. Lee., & Park K.(2018), A Comparative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Students by University Admission Typ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2), 131-154.  
DOI : 10.22251/jlcci.2018.18.12.131
- [23] W. Baek., & Jung. H.(2012),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extra-curriculum activities and teaching method on college educ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1(1), pp. 261-284.  
UCI : G704-000105.2012.21.1.004
- [24] S. Hwang(2019),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nd Its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4), 11-37.
- [25] J. M. Kim & Kang S.(2021), An Exploration of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xtra-curricular Research*, 2(1), 25-36.

- [26] J. Moon(2015), Effects of Social Network Measures on Individual Learning Performance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616-625, DOI:10.5392/JKCA2015.15.11.616.
- [27] S. Kim, Shin, G. & Lee, J.(2021), A Case Study of the Non-face-to-face Course Development and Operation through a Metaverse, *Journal of Extra-curricular Research*, 2(2), 41-52.

이상우(Lee, Sang Woo)

[정회원]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사)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석사)
- 1994년 8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박사)

- 1992년 9월~현재 :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업재무, 파생상품, 경영교육
- E-Mail : minaa@ji.ac.kr